



일주문

광주생명나눔회 3돌 범회 영조 생명나눔실천회 광주 지역본부장 스님(중심사 주지)은 19일 사무실에서 창립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경제살리기 천일기도 회향 동봉 흥천사 주지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충주 흥천사에서 '경제 살리기 천일기도 회향 및 만등법회'를 봉행한다.

평통지은 상임위원에 법제 민족통일불교협의회회장은 13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도심포교당 빈이사 개원 원육 스님은 23일 서울 양천구 목 3동에 도심포교당 '빈야사'를 개원,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02652-1370)

10월 다보법회 법문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0월 10일 오후 2시 대한불교진흥원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27일 시인건축 특강 이강근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7시 경주신라문화원 강당에서 '시인건축'을 주제로 특강한다.

조계종 초임주지 연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은 21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초임주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무행정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임주지교육은 종단구조 및 중무행정 일반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종단정보화 개요, 중무행정 전산화 활용, 문화재 관리방안, 사찰의 사회활동과 환경, 교육 포교정책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20일 70여개 사찰 사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찰 사무장교육을 실시했다. 김원우 기자



▷민주당 한광욱 대표(왼쪽 사진)와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이 1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을 신임 인사차 방문했다.

“방송 광고공사 유지” 당부

정대 스님, 한광욱 대표 면담... 박준영 처장도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9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신임 민주당 한광욱대표의 예방을 받고, “요즘 방송계에 코바코 체제가 흔들리면 종교방송의 예방을 받고, “요즘 방송계에 코바코 체제가 흔들리면 종교방송의

공영화 될 수 있도록 광고공사체제의 유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광욱대표는 “해법정책이 자리를 잡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한광욱대표의 면담에는 사회부장 양산스님, 문화부장 정각스님,

사서실장 해자스님,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의장, 윤호중 부대변인이 배석했다. 같은날 오전 10시에는 박준영 신임 국정홍보처장과 조영달 청와대 교문수석이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m@buddhapia.com

“30년 ‘참선의 힘’ 킬로만자로 올랐죠”

83세 등정 박희선 교수



“30년동안의 참선을 통해 익힌 정신집중과 호흡법이 킬로만자로 라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15일 83세라는 고령으로 아프리카 최고봉 킬로만자로(5895m)를 등정한 박희선 건국대 명예교수. 9일부터 박 교수는 참선을 함께 해온 제자 6명과 함께 킬로만자로 중간기점인 미랑구(2800m) 호를보(3290m) 등을 거쳐 6일만에 정상에 올랐다.

“참선이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가 봅니다. 10년이상씩 참선한 제자들은 모두 함께 정상에 올랐는데 참선을 시작한지 얼마안된 제자는 젊은데도 중간쯤 올라가다가 포기하더군요.” 68년 일본에서 박사학위 준비를 하던중 일본인 경산 스님을 만나 참선을 배운 후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선을 해온 박 교수는 95년 이미 76세의 나이로 히말라야 메라피코봉(6065m)을 무산소로 등정해 노익장을 과시한 바 있다. 산소가 부족한 고산에서는 정신집중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박희선 교수는 앞으로 참선과 운동을 계속해 5년안에 7천미터급 등정을 계획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수행환경 지키려 100만 서명운동”

봉선사 북한산 관동로 대책위원장 각원 스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쇠물을 부어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려 한 북한산을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터널과 8차선 도로를 내어 망가뜨려서는 안됩니다.” 20일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발족된 ‘북한산국립공원 관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계종 제25교구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각원스님(봉선사 부주지)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종단협의회, 의정부사암연합회,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불교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찰 수행 및 문화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원스님은 “도로건설로 인해 토지수용예정인 흥법사 천인사 보현사 등 3개 사찰, 도로로부터 150m 이내에 위치한 미타사 용수암 청룡사 등 13개 사찰, 200m 이내에 위치한 원각사 법화사 등 4개 사찰 등 30여개의 사찰이 소음, 진동, 지하수 고갈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면서 “우선 해당 사찰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원스님은 다음주중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서명 및 시위 등을 펼치는 한편 의정부 외곽을 도는 대안노선을 마련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봉선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청년 신행공동체로”

조계사 새 청년회장 정우식 씨

“수행과 교육, 실천이 하나되는 청년 신행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일 108배 하기’ 운동을 비롯해 한달에 한 번씩 108배 기도정진과 자자 포살법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수행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사 청년회 정기총회에서 19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우식 회장은 취임 후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지난 96년부터 조계사 청년회원으로 활동한 정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



불청) 조직국장과 조계사 청년회 기획실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불청 정책기획실장으로 청년불교 활성화에 전념해 왔다. 자신을 비롯해 임원들부터 모범적인 실천 수행을 하겠다는 정 회장은 또 “영화 ‘달마야 놀자’ 시사회와 신약인 박영석씨와 함께하는 등반대회, 만해 마라톤 대회 등 청년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포교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조계사 청년회 19대 회장단 취임법회는 11월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 무량종 승려·법사 연수

대한불교 무량종(총무원장 해안)은 13-15일 2박3일간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2001년도 승려 및 법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산하 사찰 주지스님들과 법사, 포교사 등 70여명이 동참한 이번 연수 교육에서 해안 스님은 미타 염불과 정토신앙에 대해, 원로원장 지은 스님은 종단 단합과 발전에 대해 특강했다.



방학동 미타불교대학 개원식

서울 방학동 미타불교대학(학장 대명 스님)은 20일 개원식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과 관음종 총무원장 등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명 학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타불교대학은 강북지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달해 참불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신도교육

조계종 총무원이 중앙총무기관과 유관 부서 및 단체 총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총무원 신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원장 무비스님과 포교원장 도영스님의 ‘부처님 생애와 기초교리’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발우공양선 실수 등 신행실습으로 진행됐다.



축서사 2기 불교대학 입학식

경북 봉화 축서사(주지 무예)는 5일 부설 불교교양대학 ‘제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무예 스님은 2기 신입생 50여 명에게 “기초교리와 소양을 배우고 익혀 올바른 불자의 상을 세우자”고 말했다. 축서사 불교교양대학은 봉화 지역의 유일한 교육 도량으로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다.

訃 告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龍山堂 大布教師께서 世緣이 다하여 佛紀2545年 9月 19日 오후9시10분에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불기 2545년 9월 23일(음 8월 7일) 오전 10시30분
■永訣式場 :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대구본당

문도대표 : 효선(공덕원 부산포교원 주지)
은 상 좌 : 효선, 범남, 일광, 월광
법 상 좌 : 지광, 경원, 도해, 민광, 고봉
유발상좌 : 길상, 경진
속가친지 : 김명호, 김양호, 김교정, 김미연, 박연웅, 김대인, 김홍익
신도총회장 : 자비행
부산신도회장 : 대등명
대구신도부회장 : 이우석
부산신도부회장 : 김무연
대구신도회 : 극력행, 대비행, 무애심, 외 신도일동

부산신도회 : 월명정, 반야등, 공덕화, 공덕향, 지혜심, 무량행,
자재화, 선묘화, 능인화, 감로화, 운수성, 금다화,
신행화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 : 김종성, 정종석, 이상대, 박근홍, 김귀련, 정방영,
김교정, 조군자, 김진아 외 임직원 일동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617-4번지
(053)741-0077(대구본당)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번지 용성빌딩 5층
(051)625-2253(부산포교원)

龍山堂 四十九齋案内

龍山堂 大布教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두루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Table with 3 columns: 재 (Stage), 장소 (Location), 일시 (Date/Time). Rows include 초재, 2재, 3재, 4재, 5재, 6재, 막재, and 문의 (Inquiries).

龍山堂 大布教師 葬儀委員會